

코로나19 경과와 대응, 환경규제와 ESG 전략

2021. 11. 26

- ❖ 코로나19가 진행되면서 경제동향분석센터에서 추진한 다양한 대응 보고서에 대해 간략히 제시하고,
- ❖ 위드코로나 정책이 시작되는 현 시점, 충남의 현황을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비교한 결과를 통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
- ❖ 또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ESG 경영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는 가운데, 지역 차원의 대응 방향을 점검하고자 함

목 차

- I. 2021년 경제동향분석센터의 코로나19 대응 경과
- II. 코로나19 이전 대비 현 상황은?
- III. ESG 경영이 지역에 미칠 영향과 대응전략
- IV. 최근 경제이슈 및 2022년 주요 이슈 전망(자유토론)

< 주요내용 >

- 코로나19 지난 1년 정리 “충남경제 변화와 향후 대응방향”
- 포스트코로나시대 “비대면 전환정책 검토”
- 금리인상과 수요폭증 대응

○ 코로나19 지난 1년 정리 “충남경제 변화와 향후 대응방향(1.26)”

- 충남 경기 최저점은 7월(전국은 5월), 코로나19로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부문은 소비(3월), 고용시장은 최근까지도 악화

부문	경기	산업생산	수출	수입	고용	소비
최저시점	7월	5월	4월	5월	진행중	3월
충격회복정도	30.6p	93.4p	219.6p	45.7p	-	53.2p

주) 충격회복정도는 최근 월 수치이며, 기준은 2010.1=100p임

- 산업과 수출은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필두로 회복세, 지난해 1월 수준에 근접하거나 넘어서는 수준
- 소비는 더딘 회복, 대면 업종의 위축은 현재 진행형, 자영업자 본격적인 감소세, 아르바이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용시장 조정 불가피

⇒ (대응방향) 지역상권침체, 고용위기 대응과 동시에 수요폭증 대비, 비대면 생활 장기화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로 맞춤형 지원전략 마련, 성장산업에 대해서는 지역 내 거버넌스 구축, 정부 뉴딜 정책과 연계한 성장전략 수립 필요

○ 포스트코로나시대 “비대면 전환정책 검토(4.20)”

- 코로나19 영향으로 이동제약 발생, 비대면 수요 급증, 반면 대면 중심의 경제활동 위축, 코로나19 재확산이 반복되면서 침체 가중
- 고성장 : 보건 및 의료직, 돌봄서비스 직종
- 성장기대 : 정보통신 관련 직종, 운송, 식품가공 생산직 등

- 현수준 유지 : 치안, 교육, 사회복지 등 상대적 안정된 일자리
- 쇠퇴 : 여행, 숙박, 영업, 판매, 관리직, 법률, 금융 등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2018~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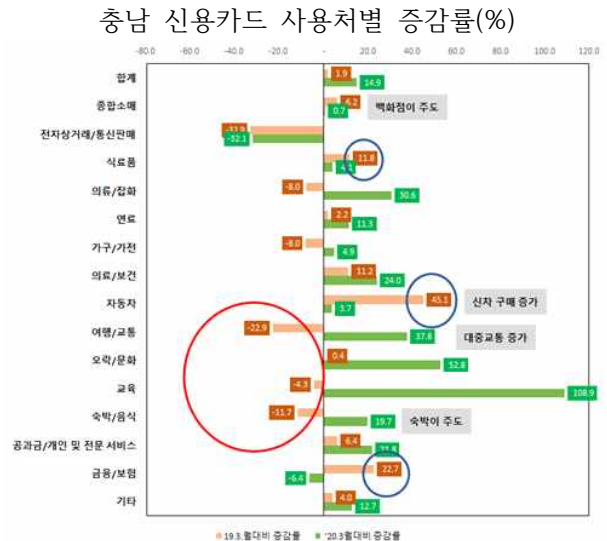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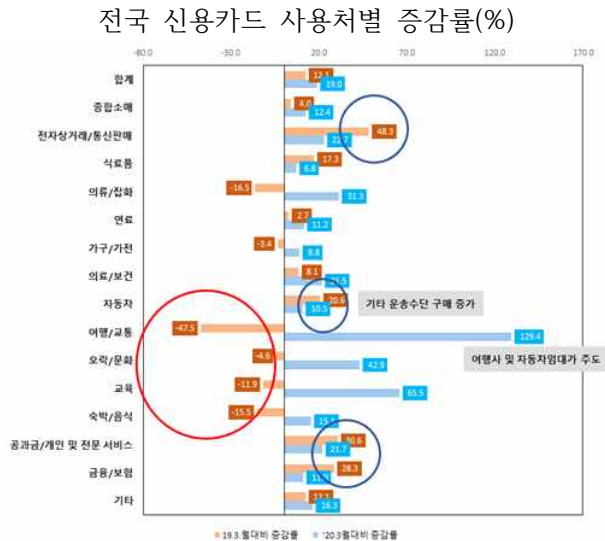
⇒ (대응방향) 비대면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중장기적인 시각의 정책 필요, 상점가 및 전통시장의 대면 경제활동에 대한 유지와 활성화 방안 필요, 서서히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변화될 수 있도록 정책의 완급조절 및 차별화, 지자체 역할 중요

○ 금리인상과 수요폭증 대응(6.25)

-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경제전망 상향조정은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 미국 테이퍼링 시기 2021년 말 예상, 한국의 선제적 기준금리 인상 전망
- 충남의 주택담보대출 급증(혁신도시 등이 원인)과 기타대출(코로나 19 영향)의 지속적 증가로 금리 인상시 부담

⇒ (대응방향)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안정자금의 상환이 만료되는 내년 초 위기상황 발생 우려, 실태파악 중요

- 미국 수요 증가, 중국 수출 호재 등 세계 물동량 과부하, 백신접종 가속화로 트래블 버블 현실화, 제조업 부문 수요 폭증은 진행 중



자료 : 한국은행, 신용카드 사용액(월평균)

- 상품 중심의 식료품, 가전, 자동차 등의 도소매, 온라인 판매는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관광관련 소비는 회복 중
- 본격적인 보복소비는 백신접종률이 높아지는 7,8월 이후 전망

⇒ (대응방향) 충남은 코로나19로 여행, 문화, 숙박업 부문의 소비 급감으로 관련산업 기반이 약해진 상황이며 보복소비 및 수요폭증이 지속되는 현상이 아니란 점을 고려할 때, 수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계획 수립

○ 충남경제 주요지표 코로나19 전후 비교분석(11.10)

○ 기타 이슈별 대응

- 충남 서비스산업 현황 및 대응방향
- 충남 석유화학산업 전망과 하방리스크 요인 분석
- 충남 상장기업 모니터링(2회)
- 쌍용차 2차 법정관리, 지역경제 영향분석(+현장 보고서)
- 군지역 인구감소와 대도시 인구집중, 충남 주택정책 방향
- 중국 헝다 사태와 미국 테이퍼링
- 요수소 대란, 충남지역 영향은?(+현장 보고서)
- ESG 경영이 지역에 미칠 영향과 대응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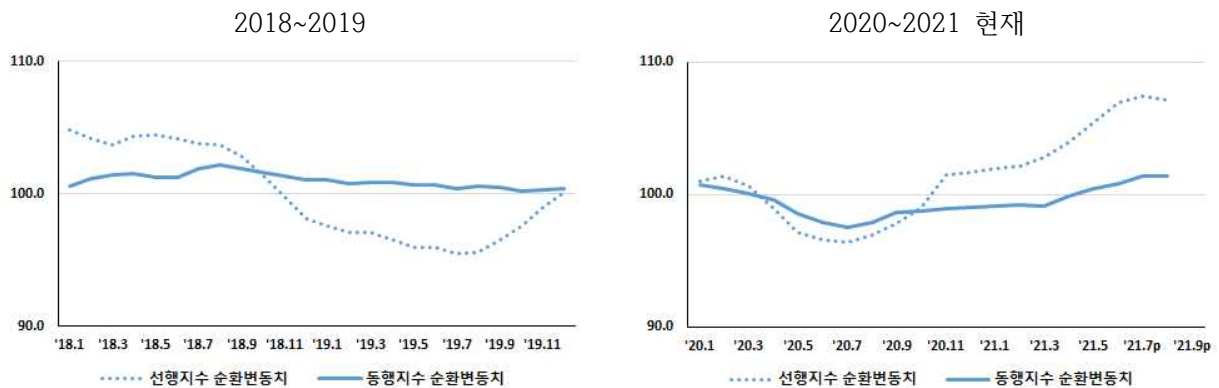
II

코로나19 이전 대비 현 상황은?

< 주요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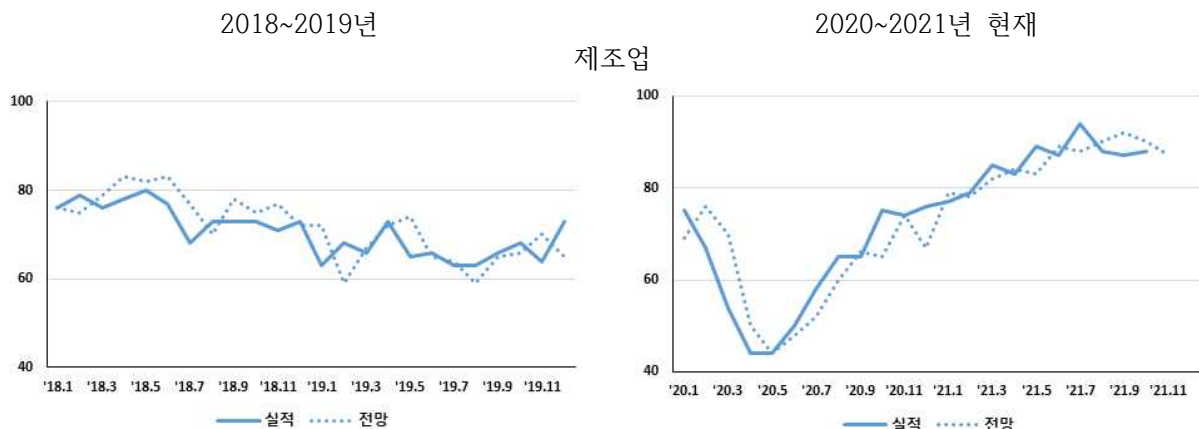
- 2018~2019년 vs. 2020~2021년 충남 부문별 현황 분석
- * 경기종합지수, BSI, 생산지수, 수출, 경제활동인구, 자영업자, 100대 생활업종, 물가, 신용카드 사용액 등

- 경기종합지수 :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점진적 회복, 최근 정체, 향후 충남의 경기 전망은 낙관적이나 소폭의 조정이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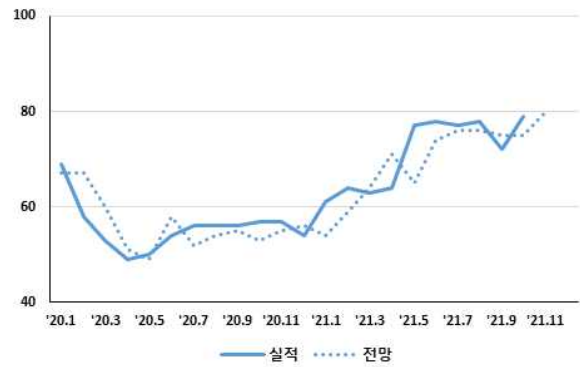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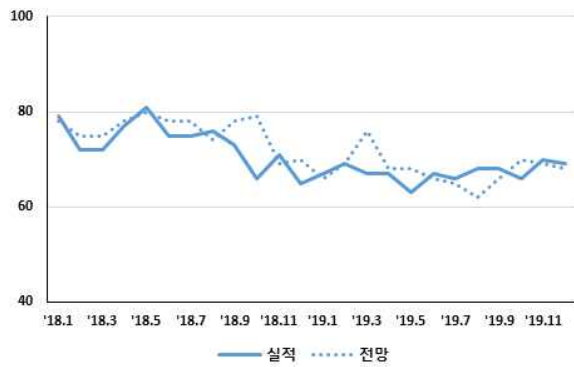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충남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 기업경기실사지수(BSI) :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경기 민감도 상승, 코로나19 초반 주력 품목의 글로벌 수요 둔화로 침체, 이후 반도체 및 석유화학 등의 수혜로 빠른 회복
- 비제조업의 경우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 제조업보다 더디지만 꾸준한 경기회복



비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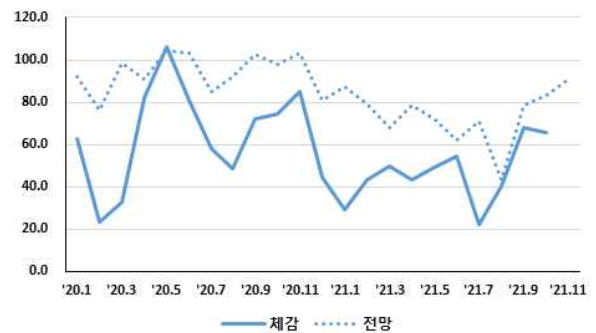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대전충남지역 기업경기조사

- 소상공인의 경우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함, 전통 시장의 경우 코로나19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 유행시기마다 급락

2018~2019년

2020~2021년 현재

전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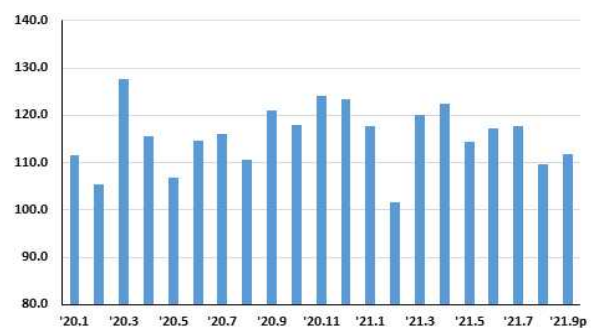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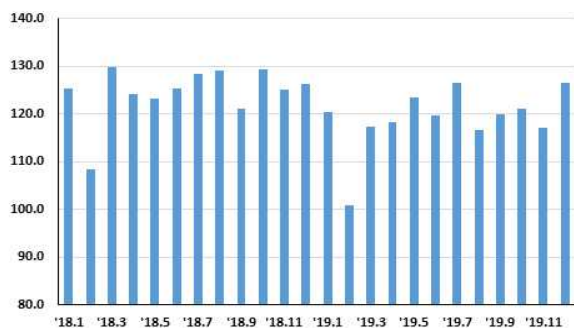
○ 산업생산 부문

- 2020년 초 회복을 기대했으나, 하반기 다시 침체, 최근 에너지, 물류, 공급망 위기 등으로 회복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
- 반면 수출은 반도체의 꾸준한 성장, 코로나19 이전 수준 넘어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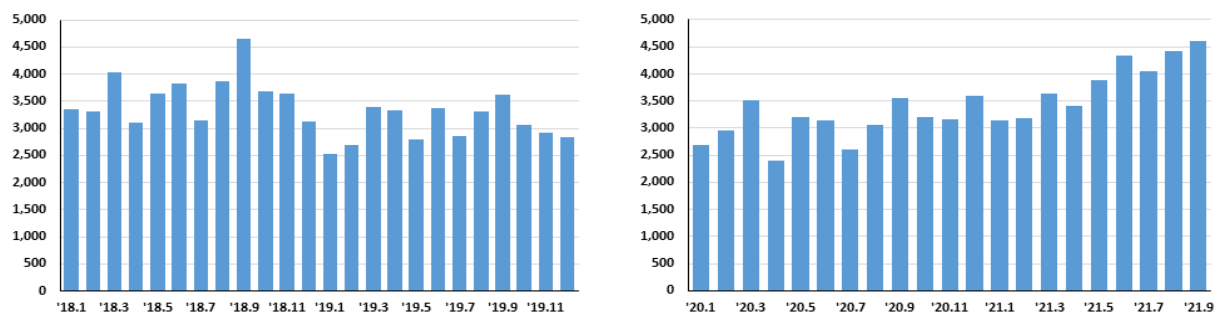
2018~2019년

2020~2021년 현재

충남전체(제조업) 생산지수(원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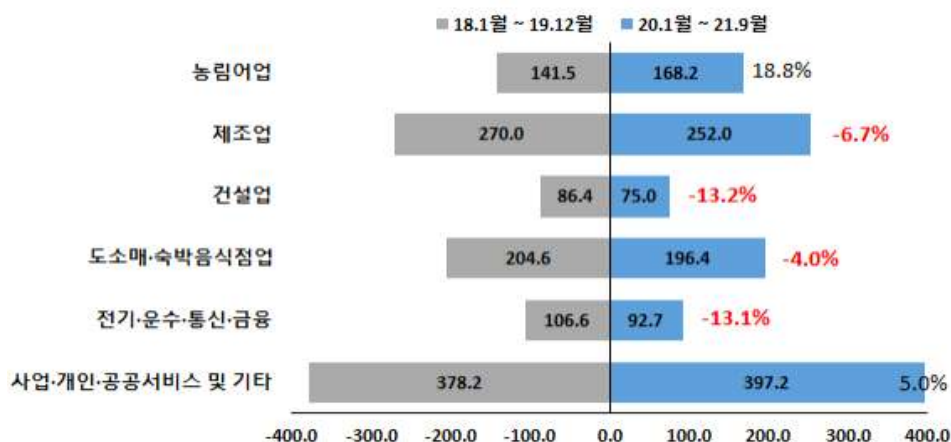
반도체 수출액(백만달러)



구분	회복력	특징	비고
생산지수 (제조업)	미회복	'21년 상반기 성장, 하반기 다시 하락, 최근 에너지, 물류, 공급망 등의 위기 요인으로 경기회복 불확실성 확대	대외 경제환경변화 모니터링 중요
생산지수 (핵심산업)	미회복 일부는 성장	회복중이나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은 아직, 반도체, 석유화학(정제 제외)은 오히려 이전보다 성장	디스플레이는 OLED 중심으로 재편, 고부가가치화 자동차산업은 회복 이후 다시 하락세
수출 (충남전체)	회복, 증가	코로나19 이전보다 증가 가장 빠른 회복세 시현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수요 증가가 주요 요인
수출 (주요품목)	회복 → 성장, 철강은 미회복	석유제품 수요는 아직 회복 중 석유화학(합성수지 주도)·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모두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	철강산업은 수출거래 중단에 따른 결과, 모니터링 필요

○ 고용부문

- 전반적인 회복세, 그러나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제조업, 도소매, 숙박업의 고용시장 회복은 더딘 편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해당기간 평균치, 비교기간 증감률

-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수 동향은 코로나19 이후 생활패턴의 변화 등이 반영되며 업종별 추이는 상이한 모습

피해업종 호프전문점, 간이주점, 구내식당, 목욕탕, 여행사, 여관·모텔, 노래방, 예식장	피해회복업종 중식전문점, 일식전문점 한식전문점
수혜업종 정제업종의 성장 부동산중개업, 실내스크린골프, 자동차수리점, 펜션·게스트하우스, 편의점, 커피음료점	수혜업종 창업 가속화 통신판매점, 실내장식가게, 패스트푸드점, 교습소·공부방

구분	회복력	특징	비고
경제활동인구	점진적 회복	뚜렷한 증가세 미비	
취업자	회복	제조업과 주요 서비스업 모두 회복 중 농림어업은 증가, 산업별 상이한 차이	코로나19 영향으로 농분기 외국인 근로자 유입 감소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감소, 최근 취업자 수 증가로 감소세 시현	니트족 등에 대한 분석 필요
고용원有 자영업자	미회복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자영업자 장기간 감소, 회복까진 많은 시간 필요	재창업 등에 대한 지원책 필요
고용원無 자영업자	회복 → 증가	소규모 자영업자 증가, 금년 초 일시적 감소, 코로나19 이전보다 증가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수	회복 → 증가	코로나19 이전보다 급격하게 증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감소한 것을 고려할 때 1인 위주의 소규모 창업 등으로 예상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폐 업지연, 휴업 등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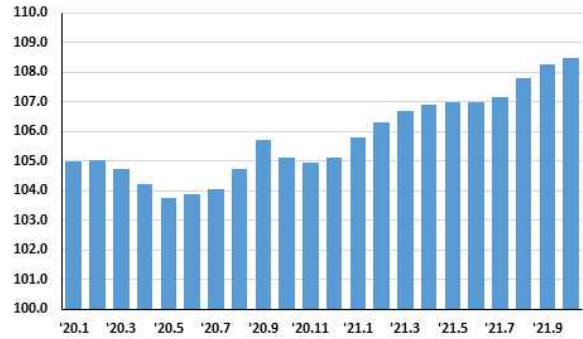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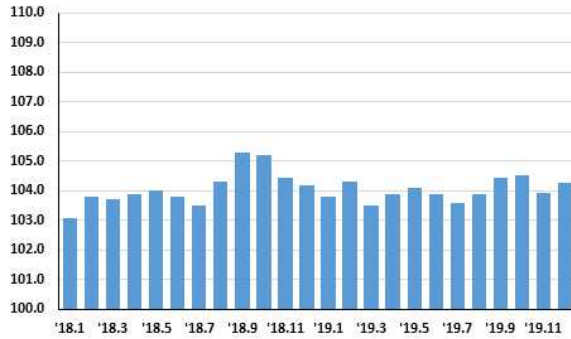
○ 소비/물가 부문

- 코로나19 이전 시기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 코로나19 시작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 최근 상승폭이 커지며 인플레이션 우려
- 2019년 경제 전반 침체로 생활물가지수 하락, 코로나19 시작과 함께 증가, 2021년 상승폭 크게 나타남(일부는 기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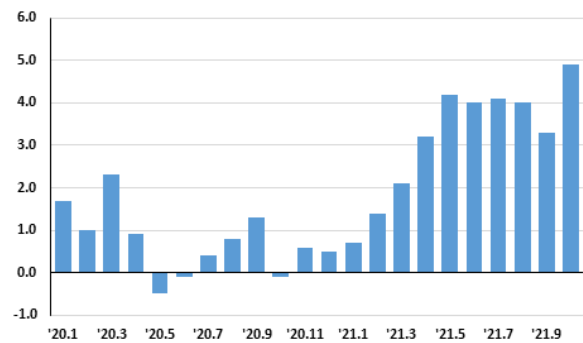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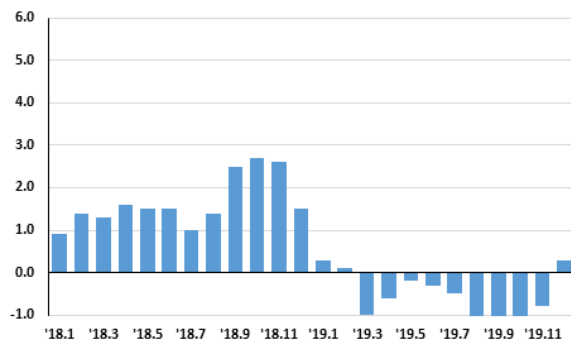
2018~2019

2020~2021 현재

충남 소비자물가지수



충남 생활물가지수(전년동월비, %)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신용카드 사용액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근접, 코로나19 이후 감소하였으나, 재난지원금 등의 효과로 일부 시기에 증가로 전환, 2021년 상반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

구분	회복력	특징	비고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	코로나19 시작 이후 지속적 상승, 최근 상승폭 커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	
생활물가지수	상승	'21년 상반기부터 지속적 상승, 최근 상승폭 증가, 안정화엔 시간 필요	전국보다 높은 수준
신용카드 소비액	회복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	정부 및 지자체 정책 유효

○ 종합 및 시사점 : 전반적으로 침체를 벗어나 회복단계로 판단

-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경기전망은 낙관적, 경기민감도는 코로나19 이전보다 대체로 상승
- 그러나, 국내외 이슈에 의해 경기변동폭은 확대되는 모습

구분	회복력	경기민감도	전망
경기종합지수	회복	보통	낙관
제조업 BSI	회복	상승	낙관
비제조업 BSI	회복	보통	낙관
소상공인 BSI	미회복	상승	낙관
전통시장 BSI	미회복	상승	낙관

- 업종별, 산업별 회복 정도는 차이가 있으며, 세부 부문별로 보면 일부는 아직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거나, 회복이 어려운 분야가 있음
 - * 코로나19 이후 생활패턴 변화로 대표적인 피해업종인 음식점, 주점, 노래방 등은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은 시간이 필요, 반면, 통신판매점, 풀빌라 중심의 관광업, 소규모 교습소, 공부방 등의 창업은 가속화되고 있음
 - * 충남 핵심 산업에서는 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회복을 넘어 성장을 보이는 반면, 석유정제, 철강 부문은 아직도 회복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 또한 회복되었으나 불안한 상황인 것으로 판단됨
 - 고용에서도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수 모두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자영업자는 여전히 이전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별 취업자수 또한 제조업, 주요 서비스업에서 이전 수준 미달
- ⇒ (대응방향) 위드코로나 정책을 통해 일상으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성장한 분야는 정상화, 침체된 분야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회복시키며, 신성장 동력으로 힘을 실어야 할 분야는 계획수립 필요
- * 예를 들어, 배달업은 비대면 경제의 성장과 함께 비대해진 부분이 있어, 정상화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나타날 문제를 최소화해야 할 것임
 - * 또한 더딘 회복을 보이는 자영업자는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한 재기와 정착을 위한 방안 검토가 필요
 - * 향후 세부 부문에 대한 별도의 분석과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며, 정부 정책과 함께 충남의 취약부문에 대해 특화된 전략 수립도 중요
 - ※ 최근에는 환경, 에너지 부문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회복세를 보이던 세계 경제도 주춤하고 있어 대외환경 변화 또한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것임

III

ESG 경영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 주요내용 >

- ESG 경영 정의와 이슈
- ESG 경영 관련 기업 동향
- 시사점 및 충남의 ESG 경영 지원전략(안)

- ESG = 환경(Environment) + 사회(Social) + 지배구조(Governance)
 -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주주가치 증진을 위한 지속가능성장 가치로 시작 (2004) / CSR → CSV → ESG로 변화
 - *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기업이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들과 공생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윤리적 책임의식, 주로 자선, 기부, 환경 보호 등 사회공헌 활동이 해당
 - * CSV(Creating Shared Value) : 기업이 수익을 창출한 이후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게 아니라, 기업 활동 자체로 사회적 가치+경제적 수익까지 추구
 - 기업을 평가할 때, 영업이익이나 부채, 자산 등의 재무적 요소에 비재무적 요소를 포함, 기업 평가의 중요한 척도로 대두, “ESG 경영이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칭하는 약어”
- 우리나라 ESG 신용영향점수(CIS, 무디스) → 한국 1등급(최고등급)
 - 전세계 144개국 대상, 유럽국가들 사이에 유일하게 아시아 국가
 - 미국, 영국, 프랑스는 2등급, 일본 중국, 러시아는 3등급 국가
- ESG 행복경제연구소의 지방자치단체 ESG 지수 공개 → 충남 14위
 - 세종 1위, A등급, 광주 2위, 최하위는 충북
 - 충남은 종합점수 73.36으로 B등급, 17개 시도 중 14위
 - * E(환경) 부문 등급이 C로 시도 중 최하위, 반면 G(지배구조) 부문은 4위

2021년 해외 ESG 8대 이슈

- * ESG정보공개 표준화 / * 유럽 기후법과 지속가능금융 실행계획
- * 탄소국경제도 도입 / * EU Taxonomy, SFDR, TCFD 채택 등 기후금융혁신
- * 플라스틱 규제 도입 / * 생물다양성을 둘러싼 금융 프레임 워크
- * 스튜어드십과 주주행동주의 / * 공급망 책임 및 인권보호 의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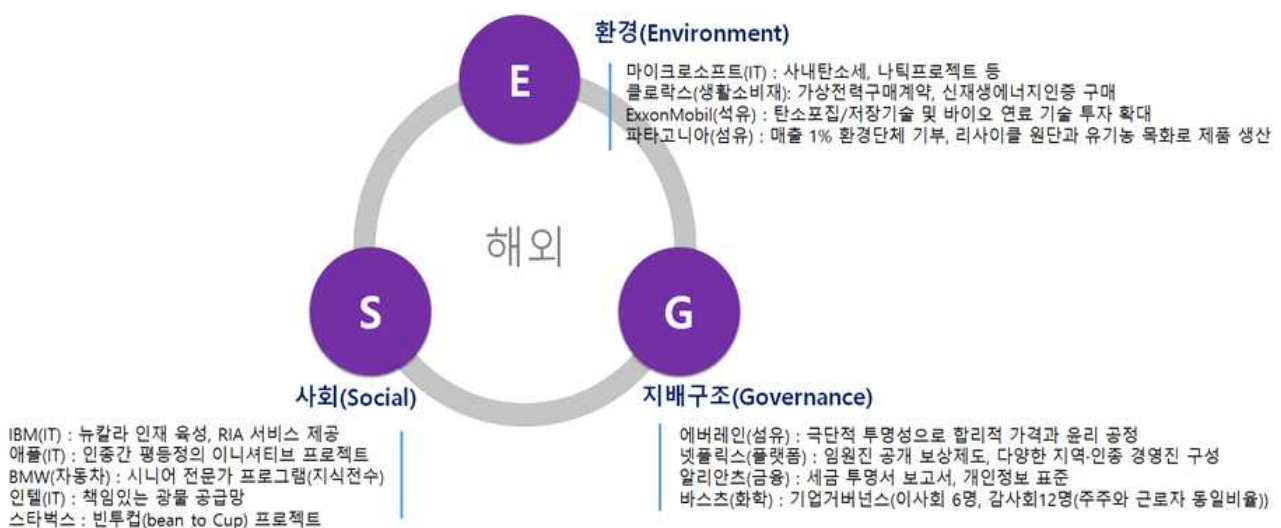
2021년 국내 ESG 8대 이슈

- * 금융위원회 ESG 정보공개 의무화 / * ESG 채권 발행 활성화
-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3기 시행 / * 2050년 탄소중립 선언
- * 금융권 탈석탄 선언 / * 환경부 K택소노미 지정
- * 여성이사 할당제 / *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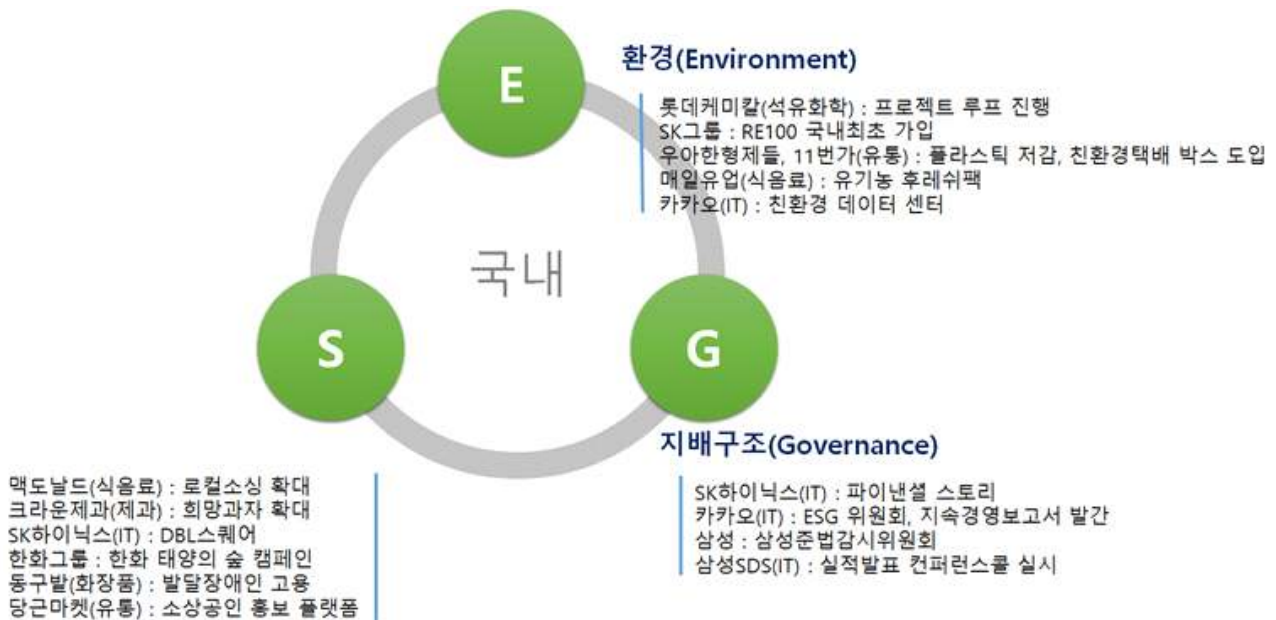
- ESG관련 6대 키워드 : ESG투자, 글로벌 표준 제정, 기후변화 대응, 공급사슬, 다양성, 신기술
 - 지속가능성 투자 원칙 확산 및 ESG 투자 자산규모 증가
 - ESG 글로벌 표준 제정 움직임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이슈 대두
 - 공급사슬까지 확대된 책임경영
 - 인종 및 성별 다양성
 - 신기술과 비즈니스의 접목

- ESG 관련 정부 정책동향 : 범정부 차원에서 ESG 인프라 확충 방안 마련, 적극적인 정책 추진 중
 - 기획재정부 : 공공기관 공시항목에 ESG 관련 내용 확대
 - 산업자원부 : 한국형 ESG(K-ESG) 지표 마련, 의견수렴 중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ESG 종합대책, 경영 안내서 마련
 - 환경부 : ESG 경영 ‘환경성과’ 평가체계 구축, K-택소노미 마련
 ⇒ 민간 중심의 ESG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공공부문이 ESG 확산을 위한 지속가능 성장기반 확충

- ESG 경영 관련 기업 동향
 - 해외 : 가장 활발한 분야는 S(사회), 공정한 글로벌 공급망 형성을 위한 노력 중심



- 국내 : 대기업 중심의 진행, 사회공헌 활동 중심, ESG 경영에 대한 리스크 관리 차원



- 충남 : 탄소배출 산업 집적, 환경부문 설비투자 활발, 지역의 재생 산업 성장 가능성
 - * LG화학 : 친환경 설비 대규모 투자, 대산 사업장을 ESG 사업 메카로 육성 계획
 - * 현대제철 : ESG 경영 적극적 도입, 해외 지속가능경영지수(DJSI)에서 2년 연속 전세계 철강산업부문 최우수 기업 선정
 - * 한화 : 친환경 에너지 설비 기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
 - * 해태제과 : 친환경 공장 건립, 태양광 발전 설비 및 친환경 보일러, 친환경 소재
 - * 코다코(자동차부품사) : 환경관리 전담부서 운영, 공해방지시설 투자 확대
 - * 한창그린홀딩스 : 페비닐, 페타이어 등 열분해 압축하여 재생유 생산 설비 설치

○ (시사점) ESG 경영의 문제점 : 과도기, 가치 혼란, 실질적인 모델 부족, 참여율 저조

- 평가 및 방법론에 명확한 정답은 없는 과도기적 상태, ESG 경영에 관한 개념 정립 등 초기 혼란 존재
- 상생협력, 자발적 실천이 기반이 된 선순환적인 발전이 중요하나, 실질적인 모델이 부족하고, 참여율도 저조
- ⇒ ESG 경영 도입에는 크고 작은 문제점이 존재하나 경제사회 전반에서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진행

- ⇒ 비용을 넘어, 기업 이미지를 위한 사회공헌을 넘어, 이제는 기업 이윤추구와 부합할 수 있도록 새 판을 짜야 하는 상황
- ⇒ ESG 경영에서 뒤처지면 수출에 제약을 받고, 성장에 부정적 영향
→ 선제적 대응이 필요

○ (충남 ESG 도입)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적 산업, 석탄화력 발전소 입지 → 위기이자 기회

- 철강, 석유화학 등의 에너지 집약적 산업은 환경 측면의 개선 요구가 높음
- 탈석탄과 관련한 환경 이슈 부각, 관련업체들에 대한 금융권 투자가 막히는 불리한 상황 지속
- 중소기업의 ESG 경영은 비용 측면에서 부담 증가, 주52시간, 중대 재해처벌법, 화평법 등 당면한 과제들의 해결이 우선되면서 ESG 대응 여력 부족도 문제
- 충남은 탄소배출 산업 집적지로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 모색 → 대기업과 상생협력 중요, 중소기업의 참여 유도 필요

○ (충남 ESG 지원전략)(안) : 충남형 모델 구축 지양, 공급망 고려, ESG 전환부터 평가인증 이후까지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 ⇒ 충남만의 평가지표, 충남형 모델 구축은 지양, 정부가 제시할 K-ESG 지표를 활용하되 충남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 지표를 검토, 보완하는 것이 필요
- ⇒ 개별기업 지원보다는 업종(산업)을 그룹화하여 종합적인 전략 수립, 대기업+중견+중소+소상공인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 ESG 컨설팅부터 시작, 전환과정에서의 정책적 지원 필요, 평가 인증 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유인책으로 마련

※ 우선추진사업 예시

- ① 기존 기업지원정책을 ESG 중심의 기업지원정책으로 재편함과 동시에 신규 ESG 관련 정책 추가
- ② 업종(산업)별 ESG 컨설팅 그룹 구성(전문가+평가/지원기관+기업)
- ③ 정부 K-ESG 지표에 대한 충남 차원의 접근 방안 연구

IV

최근 경제이슈 및 2022년 주요 이슈 전망(자유토론)

< 진행순서 >

- (발제내용) 코로나19 및 ESG 경영관련 참여기관별 대응방안
- 최근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이슈
- 2022년 예상되는 지역경제 이슈

○ 코로나19 관련 기관별 대응 경과 소개

- 기업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결과, 설문조사 등 별도의 조사결과
-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사업 소개, 추진 경과 등

○ ESG 경영에 대한 현장 인식, 기관에서의 대응 방안

- 기관 자체의 ESG 경영을 위한 방침, 전략 등 소개
- 기업, 소상공인들의 ESG 경영 도입을 위한 사업, 정책 소개
- 수출기업 대상 공급망 실사제도(EU)에 따른 애로사항, 대응방안
- 철강산업, 석유화학산업의 ESG 경영 현장 사례 소개 등

○ 최근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이슈(예시)

- 코로나19로 달라진 경제 환경, 일자리 위기
- 에너지 대란, 물류 대란 등에 따른 공급망 위기
- 자원의 무기화(요소수 사태)에 대한 대응
- 제도, 규제 등에 따른 산업(기업)의 애로사항
- 미중갈등, 중국 리스크, 수출규제 등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우려 등

○ 2022년 예상되는 지역경제 이슈(예시)

- 위드코로나 이후 불확실성 완화 vs. 코로나19 여파 지속
- 금리인상, 가계부채 부담 증가, 인플레이션 우려
- 홍수/가뭄 등 자연재해 및 친환경 에너지 정책 등에 따른 원자재 부족 및 가격 상승
- 탄소중립,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성장 둔화

※ 위에 제시된 주제는 예시로 각 참여기관별 업무영역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